

# 광주미술 서울공략 나선다

## 나인갤러리, 16~22일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서 신년기획전



윤애근 작 '공-향연'

무자년 새해를 맞아 광주미술이 서울공략에 나선다. 나인갤러리(관장 양승찬)는 16~22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광주 미술의 현황과 전망'전을 주제로 신년기획전을 연다.

이번 기획전은 지역적인 한계에 부딪혀 중앙무대에 작품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작가들에게 발표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미술을 대표하는 중견작가는 물론 실험성 강한 신예 작가들을 망라해 광주미술의 현주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최근 경매시장의 활황으로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지역작가들의 서울입성을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미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동에서 열리는 만큼 일반 관람객은 물론 국내 미술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전시회의 대관료 5천만 원은 박마트에서 전액 후원한다.

참여 작가는 김대원, 김익모, 유수중, 윤애근, 최영훈, 박태후, 정순이, 진인장, 최향, 김숙민, 오이랑, 강동권, 주홍 등 40여 명. 서양화·한국화·조각·사진 등 각 장르를 대표하는 작가 위주로 선별했다.

이번 전시는 광주 미술의 현재를 볼 수 있는 '현황'(50~60대 작가)과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 '전망 I'·'전망 II'(30~40대 작가) 등 3부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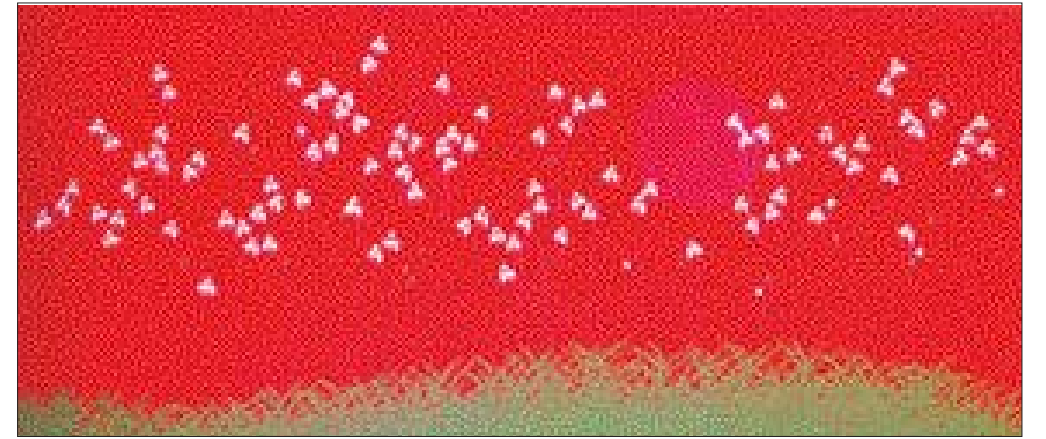
1부 '현황'에서는 여우와 익살스런 광대의 모습

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최근 경매시장의 활황으로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지역작가들의 서울입성을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미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동에서 열리는 만큼 일반 관람객은 물론 국내 미술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전시회의 대관료 5천만 원은 박마트에서 전액 후원한다.

참여 작가는 김대원, 김익모, 유수중, 윤애근, 최영훈, 박태후, 정순이, 진인장, 최향, 김숙민, 오이랑, 강동권, 주홍 등 40여 명. 서양화·한국화·조각·사진 등 각 장르를 대표하는 작가 위주로 선별했다.

이번 전시는 광주 미술의 현재를 볼 수 있는 '현황'(50~60대 작가)과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 '전망 I'·'전망 II'(30~40대 작가) 등 3부로 구성됐다.

1부 '현황'에서는 여우와 익살스런 광대의 모습



유수중 작 '달과 해오라비'

을 형상화한 한국화가 김대원(조선대 미대)의 '옛 날 옛적에', 보름달이 뜬 밤 나비처럼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들관의 해오라비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서양화가 유수중의 '달과 해오라비' 등이 선보인다. 장지를 여러 겹 발라 독특한 질감을 주는 윤애근(전남대 예술대)의 '공-향연' 등 중견작가 13명의 작품이 예향 광주의 미술 세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2부 '전망 I'전에 참여하는 27명의 작가들도 사진이 이용된 조각에서 영감을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도를 선보인다. 조각가 김숙민은 금방이라도 땅을 뚫고 나올 것 같은 고구려 무사를 브론즈로 표현한 '삼족오의 비상',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관화작가 오이랑의 'existence-love' 등이 전시된다. 이밖에 고근호, 김상연, 류재웅, 서기문, 손

봉채, 이이남, 조근호, 허진 등이 참가한다.

3부 '전망 II'에서는 꽃을 화면 가득 그린 강동권의 '아이리스', 현대적인 색감을 표현하는 주홍의 'kiss' 등도 서울 관람객에게 광주 미술의 내일을 보여주기 위해 출품한다. 이들 외에 김일근, 신효윤, 전형순, 조운성, 조은경, 최선 등이 출품한다.

서울 전시가 끝나면 오는 2월14~20일까지는 나인갤러리, 신세계갤러리에서 광주전이 열린다.

나인갤러리 양승찬 대표는 "그동안 광주지역 작가들은 대구 등 타지역에 비해 서울과 교류가 활발하지 못해 작품거래가 부진했다"면서 "이번 전시회는 뛰어난 작품성에 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 부족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지역 작가들이 중앙 무대에 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노창수씨 '한국 현대시의 화자연구' 출간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으로 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창수씨가 '한국 현대시의 화자연구'(푸른사상)를 출간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현대시에서 화자의 중요성을 파악, 작품·문학사조별로 화자 유형을 분류했다. 또 설화와 민요 문학을 통해 해양문학의 뿌리와 위상을 찾았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쉬운 시, 재미있는 시를 쓰기 위해 노력하는 현역 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씨는 현재 광주여자고등학교 교장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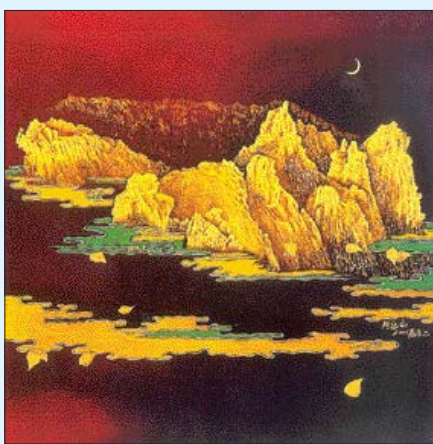


한국 현대시의 화자연구

## 대동갤러리 개관 1주년 초대전 11~23일

대동갤러리는 오는 11~23일까지 개관 1주년을 맞아 지역 중견작가들의 작품을 한데 모은 초대전을 갖는다. 전시에는 고영을, 김대원, 윤의중, 노의웅, 유영도, 한희원, 황영성 등 43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20여년간 불화작업에 매달려온 탕화작가 고영을이 월출산을 황금빛으로 그려낸 '산', 아기가자한 구름에 흰색을 입힌 노의웅의 '구름천사' 등이 선보인다. 또 회색을 덧칠해 담판 폐선부지의 험악함을 형상화한 한희원의 '폐선부지 반월동 풍경'과 가족의 다양한 표정을 그린 황영성의 'Family story' 등이 전시된다. 문의 062-227-5833.



고영을 작 '산'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오월문학 영상으로 되살아난다

### 광주·전남작가회의, 5월작가 30여명 영상 기록 작업

민주화에 대한 염원과 광주의 아픔을 다룬 오월문학이 영상으로 되살아난다. (사)광주·전남작가회의(이하 작가회)는 '오월문학관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18광주민주화쟁을 다룬 작가와 작품의 배경이 됐던 장소를 찾아 그날의 흔적을 다뤄온 형식의 영상물 기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풍' '광주출판사' '일과놀이' '한마당' '들불' 등 1980년 이후 5월 관련 문화운동을 펼쳤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광주지역 출판사들에 대한 행적도 찾는다.

이를 위해 작가회의는 영상작업에 참여할 실무팀을 꾸려 작가 및 작품 선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김남주, 문순태, 김준태, 송기숙, 황지우, 임동화, 임철우 등 작가 30여 명과 출판사 20여 곳을 확정, 오는 2월부터 작가의 증언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작품의 배경이 됐던 장소, 실존 인물을 영상에 담는다.

이밖에 작가회의가 그동안 수집한 오월 작품, 신문, 성명서, 논문 등 당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와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작가회의 설정한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오월 문학을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다가가 수 있도록 영상작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영상작업은 3~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작가회의가 운영하는 오월문학관(광주시 북구 중흥동 북구향토문화센터내)에서는 매년 오월을 주제로 한 작품·기록물 전시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오월문학 강좌 등을 열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사)광주·전남작가회의가 지난해 진행한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학카페'의 한 장면. 소설가 채희은 교수(광주여대·맨 왼쪽)가 작품 '곰보이제'의 배경이 됐던 영광을 찾아 작품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작가회의 제공)

## 김세곤씨 '송강문학기행' 펴내

여수 출신 노동부 공무원인 김세곤(54·노동부 부이사관)씨가 '송강문학기행'(열림기획)을 출간했다.

저자는 송강 정철의 가사문학의 본고장인 담양을 기행, 환벽당·송강정·식영정·면양정 등을 찾아 송강 문학을 느낄 수 있는 당대 최고의 문인들의 시를 해석했다. 저자는 서문에서 "송강 문학의 답사 안내 책자로 남도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강문학기행

/이은미기자 emlee@

## 가족뮤지컬 '춤추는 피터팬' 공연

13일 광주남구문예회관에서 가족뮤지컬 '춤추는 피터팬'이 13일(낮12시·오후2시·4시) 광주남구문예회관에서 공연된다.

서울 DUBU기획 주최로 극단 로얄시어터가 진행하는 이번 공연은 피터팬과 팅크벨이 사는 환상의 나라 네버랜드가 배경이다.

어른들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의 엄마 윈디와 친구 루비, 악당 후크 선장 등 출연진들은 관객들에게 신나는 라이브 음악과 댄스를 선보인다.

정영우·이성하·백재우·최세웅·박은진씨 등이 출연한다. 전석 만원(할인권 소지시 8천원). 문의 062-654-895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즐겨보는 시간 보너스도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메가박스

구.런던역사거리 ☎예매1544-0600

1관 기다리다 미쳐 (15세)	최고급관
2관 P.S.아일랜드 (15세)	
3관 헐리와 그레텔 (12세)	
4관 아메리칸갱스터 (18세)	
5관 가면 (18세)	
6관 황금 나침반 (전세)/꿀벌대소동(전세)	
7관 색즉시공2 (18세)/더 시크릿 (15세)	
8관 내셔널트레저-비밀의책 (12세)	
9관 내 사랑 (12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되었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무료팝콘 위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마교의왕남김백화점 (전세)/황금 나침반 (전세)	
2관 내사랑 (12세)/웅의주도미스신 (15세)	
3관 P.S.아일랜드 (15세)	
4관 나는전설이다 (12세)/내셔널트레저 (12세)	
5관 기다리다미쳐 (15세)	
6관 색즉시공2 (18세)	
7관 아메리칸갱스터 (18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옥내·옥외 주차장 300대 \*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원도시영영화관 \* 예매: www.joycoco.com / 1588-7941

### 컬럼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뒷편)

1관 마교의왕남김백화점(전세)/웅의주도미스신(15세)	
2관 색즉시공2(18세)/헐리와그레텔(12세)	
3관 엘빈과슈퍼밴드(전세)/황금 나침반(전세)	
4관 황금 나침반(전세)	
5관 P.S.아일랜드(15세)	
6관 꿀벌대소동(전세)/가면(18세)	
7관 내셔널트레저(12세)	
8관 내사랑(12세)/아메리칸 갱스터(18세)	
9관 나는 전설이다(12세)	
10관 기다리다 미쳐(15세)	

\* 오늘 최대 주차장 \* 예매심야 상영합니다 \*  
 \* 상무점 100원 \* 해남점 1588-7941  
 \* 상영시간표 별도 (11시~2시)~연

색깔있는 영화선박 \* www.cinusc.com / 1544-0070

###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내사랑(12세)/아거스트러쉬(전세)	
2관 기다리다 미쳐 (15세)	
3관 내셔널 트레저(12세)	
4관 꿀벌대소동(전세)/아메리칸갱스터(18세)	
5관 P.S.아일랜드(15세)	
6관 나는 전설이다(12세)/색즉시공2(18세)	
7관 헐리와그레텔(12세)/황금 나침반(전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1544-0070  
 \* 이동권신사 할인혜택 \* 전회영 가능  
 \* 씨너스북사 사무(오전9시~오후9시)

즐거움이 가득 \* www.mc12.co.kr / 1588-9101

###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웅의주도 미스신 (15세)	
2관 P.S.아일랜드 (18세)	
3관 나는 전설이다 (12세)	
4관 꿀벌대소동(18세)/색즉시공2(18세)	
5관 엘빈과슈퍼밴드(전세)/내셔널트레저(12세)	
6관 기다리다 미쳐 (15세)	
7관 헐리와그레텔 (12세)/가면(18세)	
8관 아메리칸갱스터 (18세)/아거스트러쉬(전세)	
9관 황금나침반 (전세)	

\* 리바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암) 3시간 무료주차 \*  
 \* 관람객 편의를 위한 전용휴게미션 \*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 전회영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세로문기점 \* www.primuscinema.com/www.jelldinema.co.kr \*

### 제일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기다리다 미쳐 (15세)	
2관 가면 (18세) / 내사랑 (12세)	
3관 황금나침반(12세)	
4관 색즉시공2 (18세)	
5관 아일랜드 (12세) / 내셔널트레저 (12세)	
6관 나는 전설이다 (12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